

분노의 문학과 정념기호학*

— 김사과의 『미나』를 중심으로

김미현**

【 차 례 】

- I. 서론 : 탈감정사회와 분노의 문학
- II. 분노의 사전적(辭典的) 정의와 어휘의미론적 접근
- III. 정념도식과 분노의 통사론적 전개 양상
- IV. 선조건 층위에서의 긴장도식과 분노의 폭발
- V. 결론 : 정념기호학과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

국문초록

21세기를 맞아 탈감정사회 혹은 소비자본주의에 대한 반응으로서 무관심이나 냉소와 같은 ‘정념의 부재(apathy)’가 만연해 있는 한국문학에서, 김사과 소설로 대표되는 ‘돌아온 신경향파’ 문학의 주요 정념인 ‘분노’는 정념기호학의 대상으로서 유효하고도 구체적인 방법론과 시각을 제공한다. 특히 김사과의 분노3부작 중 첫 장편소설인 『미나』에서는 어휘의미론적 층위에서 ‘실망감→불만족→공격성’이라는 어휘소들을 중심으로 ‘공격성을 동반한 불만족’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소설적 서사로 형상화하고 있으며(II장), 정념 도식 5단계에 해당하는 ‘형상화→장치화→정념화→정동화→도덕화’의 통사론적 전개를 통해 ‘분노하지 않기를 원하다’라는 의지(vouloir)보다는 ‘분노해야 한다’라는 의무(devoir)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III장), 이러한 분노의 정념이 무통/고통, 비폭력/폭력, 무책임/책임, 악/선의 대립을 서로 교차·혼합·전도시킴으로써 최대의 긴장을 형성하면서 ‘문화 폭발’적인 도덕적 에너지를

* 본 논문은 2007년도 정부 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15)

**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

확보하고 있다(IV장). 이러한 세 층위(어휘·통사·담화)와 세 가지 도식들(서사도식·정념도식·긴장도식)을 통해 정념기호학적 접근을 해본 결과 분노의 정념을 중심으로 한 분노의 문학이 21세기적인 계급 불평등과 새로운 가난, 이데올로기적 소비에 대한 도덕적 비판이자 문학적 응전일 수 있음을 확인해 보았다. 이는 정념기호학이 기호학의 대상을 구조에서 정념으로, 문학 내부에서 문학 외부로 확대하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정념 자체의 생성 과정에 대한 구조적 관심이 아닌 정념의 생성이 사회와 관계 맺는 가치론적 관심으로 그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예증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열쇠어 : 정념기호학, 분노, 김사과, 자본주의, 탈감정

I. 서론 : 탈감정사회와 분노의 문학

21세기는 ‘감정의 시대’라는 말을 확인시켜주듯이 감정 민주주의, 감정 자본주의, 감정 노동, 감정 관리, 감정 독재, 감정 수업, 감정 교육, 감성 경영, 감성 디자인 등 감정(감성)과 관련된 용어들이 유행하고 있다. 합리적 이성을 우선시하는 근대이데올로기로 인해 위험하고 미숙하며 열등한 타자 취급을 받았던 감정의 복권이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이런 감정의 유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의 물결 아래 생명에 대한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감정에 대한 관리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¹⁾ 이런 맥락에서라면 지금과 같은 감정의 호황은 경제 가치나 심리 정치에 복무하게 하려는 통치술의 또 다른 모습에 다를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²⁾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탈감정사회(postemotional society)’에 대한 논의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탈감정사회란 “이전 시대라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사건과 위기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1) 이수형, 「문학과 감정 논의에 대한 (재)검토」, 『문학과 사회』, 2015. 여름, 61쪽 참조.

2) 한병철, 『심리 정치』, 문학과지성사, 2015, 61쪽 참조.

사회”³⁾를 말한다. ‘탈’감정사회라고해서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감정은 존재한다. 다만 열정은 사라지고, 감정은 청소되며, 인위적으로 대량생산되면서 쉽게 조작된다. 소위 ‘감정의 맥도날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⁴⁾ 이런 무관심이나 무기력이라는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동참이나 참여를 위해 오히려 ‘분노하라’⁵⁾고 외치는 시대가 바로 21세기라고 할 수 있다. 원초적인 불만의 배설이나 폭력적인 과잉 반응을 보이자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감정의 주인’이 되자는 것이다.⁶⁾

이런 탈감정사회 논의와 연결될 수 있는 문학의 중심에 김사과의 소설들이 있다. 1984년생 젊은 소설가 김사과는 2005년 등단작인 「영이」에서 “나는 읽는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 느끼는 당신을 원한다. 아주 오래 느끼는 당신을 원한다. 당신은 오래 느껴야 한다.”⁷⁾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독자에게 그런 ‘오래 지속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 ‘분노의 문학’을 주로 창작한다. “분노라는 바이러스의 감염자들”⁸⁾이 보여주는 “비등점을 초과한 분노의 정념”⁹⁾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앙팡 테리블’ 혹은 ‘앙팡 스키토’가 바로 젊은 작가 김사과이다. “내 취미는 반항이다.”¹⁰⁾라거나 “나는 목표를 알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나의 문장과 글을 구성한다.”¹¹⁾라고 외치면서 “분노로써 반응하고 분열증으로 싸우는 소설”¹²⁾을 창작하고 있는 것이다.

3) 스테판 G. 메스트로비치, 『탈감정사회』, 박형신 역, 한울, 2014, 12쪽.

4) 같은 책, 16쪽.

5) 스테판 에셀, 『분노하라』, 임희근 역, 돌베개, 2011, 15쪽.

6) 소영현, 이하나, 최기숙, 『감정의 인문학』, 봄아필, 2013, 107쪽 참조

7) 김사과, 『02영이』, 창비, 2010, 25쪽.

8) 김영찬, 「앙팡 스키토」, 『02영이』(해설), 창비, 2010, 248쪽.

9) 정홍수, 「현실의 귀환, 그리고」, 『흔들리는 사이 언뜻 보이는 푸른별』, 문학동네, 2014, 47쪽.

10) 김사과, 「내 취미는 반항이다」, 『문장웹진』, 2008. 10.

11) 김사과, 「뒷문」, 『문장웹진』, 2007. 5.

12) 류보선, 「한국소설의 새로운 발명품들」, 『문학동네』, 2011. 봄, 505쪽.

21세기 들어서 김사과의 소설뿐만 아니라 편혜영, 백가흠, 김애란, 박솔피, 김이설 등 젊은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도 1920년대 초반 박영희나 최서해, 김기진 등을 중심으로 등장했었던 신경향파 문학 속 극한적인 빈궁이나, 흥건한 피, 폭력, 광기, 살인 등의 폭력적 요소들이 재소환되고 있기에 이들의 문학은 ‘돌아온 신경향파’의 문학으로도 불린다.¹³⁾ 하지만 21세기 신경향파문학은 이전처럼 재난이나 파국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나 극단적인 비판에는 관심이 없다. 더 이상 재난이나 파국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재난이나 파국 그 자체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재난이나 파국조차도 계급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 때문에 이런 재난이나 파국을 받아들이는 태도 혹은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¹⁴⁾

본 논문에서는 김사과의 첫 장편소설인 『미나』(창비, 2008)를 중심으로 21세기 신경향파의 특징인 ‘분노의 문학’에 대해 주목해보고자 한다. 『미나』는 한 여고생이 친구 여고생을 죽였다는 실제 신문 기사 한 줄에서 모티프를 얻어 창작된 소설로서, 『풀이 눕는다』(문학동네, 2009)나 『테러의 시』(민음사, 2012)와 함께 ‘분노의 정념 3부작’으로 불린다.¹⁵⁾ 분노를 본격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한 첫 장편소설이기에 김사과 문학 속 분노가 지니게 될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미나』를 통해 21세기적인 분노의 문학을 대변하는 김사과 소설 속 분노의 의미와 그 시대성을 함께 확인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 소설은 소설집 『02영이』에 실린 단편 소설들과도 폭력이나 살인, 광기, 죽음 등 묵시록적 주제를 공유하기에 김사과 소설의 기원이나 원천을 규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분노의 문학’을 규명하는 데에 ‘정념기호학’ 또한 유의미한 방법론과 시각을 제시해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어휘,

13) 김형중, 「돌아온 신경향파」, 『자음과 모음』, 2010. 봄, 653~657쪽 참조.

14) 정여울, 「구원없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문학과 사회』, 2010. 여름, 334~335쪽 참조.

15) 이정재, 「21세기를 담아내는 세 가지 방식-김사과의 정념3부작을 중심으로」, 『비등하는 역사, 결빙의 현실』, 푸른사상, 2013, 219쪽 참조.

구문, 텍스트, 담론 등을 포괄하는 기호를 대상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중심을 이루었던 기존의 기호학과는 달리, 정념기호학은 그런 기호의 의미나 구조를 생성하는 정념의 근원적인 요소나 생성 과정에 대해 새롭게 주목했기 때문이다. 정념이란 “정신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 일어나고 지속되며 강화되는 느낌이나 지각 혹은 감동”¹⁶⁾을 의미하고, 이런 정념으로서의 분노를 기호학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문학텍스트에 나타난 희로애락의 문제나 ‘구조’에서 ‘감정’으로의 변화를 동시에 살펴보는 데에 적절한 것이 정념기호학이다. 그 시발점으로 그레마스(A.J. Greimas)가 수제자인 폰타뉴(J. Fontanille)와 함께 쓴 『정념기호학 *Semiotics des Passion*』 (1991)을 든다. 이 책은 내용이 관념적이고 가설적인 데다가 난해하기까지 해서 전공자들조차도 온전한 이해가 쉽지 않지만, 이후 파리 기호학파의 새로운 방향성을 가늠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¹⁷⁾

이런 정념기호학의 시각을 통해 21세기적 탈감정사회에서 파괴적인 폭력을 유발하면서도 창조적인 저항의식을 보여주기도 하는 양가적 정념으로서의 분노에 대한 기호학적 규명을 김사과의 소설 『미나』를 통해 시도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기호로서 작용하는 분노의 어휘

16) 홍정표, 『정념 기호학』,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4, 41쪽.

정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이성과 대립적 관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합리적 속성을 지니고 있고, 인간의 육체에 귀속되어 있어, 격렬하게 느끼는 쾌감이나 고통”(백선기, 「영화에서 표출된 정념의 기호와 그 함축적 의미」, 『기호학연구』 28, 2010, 137쪽)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보다 세분화시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정념이라는 용어보다 더 익숙한 ‘감정(sentiment)’은 유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정동의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정서(emotion)’는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반응 혹은 운동으로서 강렬한 강도와 짧은 지속을 특징으로 하며, ‘정념(passion)’은 지속적이고 강렬한 정서로서, 강력하다는 점에서는 정서와 비슷하지만 지성화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구분되는 인위적이고 지속적인 정서라고 볼 수 있다.(박인철, 「테오돌 리보의 정념 이론」, 『기호학연구』 28, 2010) 하지만 감정, 감성, 정동, 정념 등의 개념에 대해 확실하고도 일관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념기호학을 ‘감정기호학’이라고도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정념을 위의 모든 개념뿐만 아니라 정동, 열정, 성향, 감성, 감정 등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총칭적인 용어로서 사용한다.

17)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369쪽 참조.

의미론적 층위에서의 분석(2장)과, 5단계의 통사적 서사 전개를 보이는 정념도식에 대한 규명(3장), 심층구조보다 더 심층에 위치한 최저층위인 선조건 층위에서 긴장을 최대치로 폭발시키는 양상에 대한 정념적 해석(4장)을 통해 정념기호학의 구체적인 분석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로써 어느 특정 어휘나 선조적인 통사구조가 아니라, 작품 전체의 존재 층위에서 기호의 상징적 지배소로 작용하고 있는 분노라는 정념의 기호학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분노의 사전적(辭典的) 정의와 어휘의미론적 접근

그레마스는 “서사기호학에서 정념기호학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적 논문”¹⁸⁾에 해당하는 「분노에 관하여」¹⁹⁾를 『정념기호학』을 쓰기 전에 먼저 집필했다. 이 글에서는 분노에 관한 어휘의미론적 접근을 주로 시도하고 있으나, 구조 혹은 행위에서 정념으로 기호학의 연구대상이 변화되는 과도기적인 양상을 함께 고찰할 수 있다. 뚜렷하게 명시화되지는 않았더라도 매우 복잡한 서술적 구조들을 포괄하는 응축으로서의 정념의 어휘소들(*lexèmes*)에 대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²⁰⁾ 즉 분노에 관한 사전적(辭典的) 정의에 해당하는 ‘공격성에 동반된 거친 불만족’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해 그와 연관되는 어휘소들의 통사적 구성인 ‘실망감→불만족→공격성’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분노에 관한 세 가지 분할체(segment)”²¹⁾에 해당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어휘소들

18) 홍정표(2014), 앞의 책, 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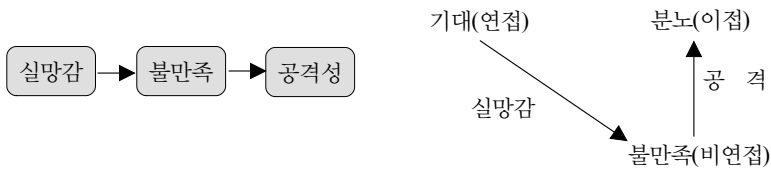
“서사기호학과 정념기호학의 차이는 담화나 텍스트에서 서사기호학은 서사구조를 기호학적으로 밝히는 것이고, 정념기호학은 정념구조를 기호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 두 구조는 모두 불변의 규칙성(형식적인 뼈대)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같은 책, 11쪽)

19) A. J. 그레마스, 『의미에 관하여』, 김성도 편역, 인간사랑, 1997, 464~494쪽.

20) 본 논문에서 앞으로 제시될 분노의 어휘의미론적 접근에 관한 이론 소개 및 분석은 ① 그레마스의 「분노에 관하여」(『의미에 관하여』, 464~494쪽) ② 김성도(2002), 앞의 책, 329~401쪽, ③ 홍정표(2014), 앞의 책, 55~98쪽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다. 또한 이런 분할체들의 시발점으로서 ‘기대’라는 정념을 전제하면
서, 이를 가치대상과 연관시키는 ‘단순 기대’와 또 다른 주체와의 관계를
증시하는 ‘신용적 기다림’으로 양분하여 분노의 의미론적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나』는 주인공이자 주체인 수정과 그런 수정의 가치 대상이자 또
다른 주체이기도 한 미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들의 관계가 연접(결
합)에서 이접(분리)으로 변화되면서 분노로 인해 미나를 살해하기까지에
이르는 정념의 이행이 주요 내용인 소설이다. 때문에 이를 앞의 세 가지
분할체와 연관된 어휘의미론적 접근과 연결시켜 통합체적이고 통사적인
연속적 시퀀스(séquences)로 재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순 기대 (S : 수정, O : 미나)

기대(연접) $S \rightarrow (S \cap O)$

불만족(비연접) $S \nrightarrow (S \cap O)$

분노(연접) $S \rightarrow (S \cup O)$

2) 신용적 기다림 (S_1 : 수정, S_2 : 미나)

기대 S_1 의무 $[S_2 \rightarrow (S_1 \cap S_2)]$

불만족 S_1 지식 $[S_2 \rightarrow (S_1 \cup S_2)]$

분노 S_1 의지 $[S_1 \rightarrow (S_1 \cup S_2)]$

S : 주체, O : 대상, \rightarrow : 행동의 함수, [] : 행동의 발화체,

() : 상태의 발화체, \cap : 연접, \cup : 이접

21) 홍정표(2014), 앞의 책, 63쪽.

이런 측면에서 ‘기대’와 ‘분노’ 사이에서 시퀀스의 중심축이 되는 ‘불만족’과 그것을 전후로 한 ‘실망감’과 ‘공격성’을 통해 분노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설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대의 실패로서의 ‘실망감’, 실망의 확대로서의 ‘불만족’, 불만족의 강화로서의 ‘공격성’이 정념의 덩어리로 작용하면서 ‘상태(être)주체’였던 수정을 ‘행위(faire)주체’로 변모시키기 때문이다.

1. 실망감

시간이 지나고 수정은 약간씩 지루해지지만 그렇다고 긴장을 놓칠 수는 없다. 마침내 수정은 화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느 때나 다름없이 하강은 계속된다. 수정은 합리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극복과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어쩐지 돌벽에 달걀흰자를 바르는 식으로 우습게 느껴진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수정은 미나가 자신에게 던졌으나 피했던 질문을 자기자신에게 던지는 처지가 되었다. (95쪽)²²⁾

『미나』에서 수정과 미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미나와 친한 사이였던 박지예의 자살 때문이다. 박지예는 성적 부진으로 우울해 하다가 도서관 빌딩에서 추락해 자살한다. 이로 인해 미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무단결석을 자주 하다가 결국 자퇴한 후 대안학교에 입학한다. 이런 미나의 행보에 수정은 당황하면서 불안을 느낀다. 미나의 행동에 대한 동감이나 걱정 때문이 아니라, “자유롭고 아름다우며 적당히 풍요로운”(50쪽) 미나의 삶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질투심과 좌절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던 미나의 삶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에 대

22) 김사과, 『미나』, 창비, 2008. 앞으로 소설의 인용은 이에 근거해 쪽수를 제시한다.

해 수정은 실망감을 느끼면서 미나에게 점점 더 큰 결핍과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

2. 불만족

갑자기 수정은 자신이 더 이상 미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랑이 비밀스러운 이유는 비밀만이 사랑을 유지시키기 때문이다. 미나의 비밀을 손에 넣었으니 수정은 이제 더 이상 미나를 사랑할 수 없다. 수정은 이제 미나를 정리하며 또 잊는다. 이제 그녀가 미나를 정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정은 미나를 지우며, 계속해서 젤리를 씹어 먹는다. 평소처럼 모든 불필요한 기억들이 빠르게 지워져간다. (125쪽)

수정에게 있어 박지예의 자살이나 미나의 동요는 명청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이다. 비실용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이기 때문이다. 합리주의자인 수정의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인생은 짜증내봐야 소용없고, 학교는 규율과 통제 중심으로 돌아가야 학교답다. 미나의 부모나 자신의 부모 모두 일정한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속류 부르주아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균형 감각을 유지해왔던 미나가 갑자기 느끼는 혼란에 대해 수정은 강한 ‘불만족’을 느낀다. “너는 박지예의 자살을 과장해. 너는 너의 괴로움을 과장해”(283쪽)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수정은 이미 “자본의 논리(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물을 쟁취하는 효율성과 속도의 논리)를 신체 깊숙이 각인한 사이보그”²³⁾화되었기에 미나의 인간다움이 오히려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23) 정여울, 「구원 없는 희생제의, 그 끔찍한 악몽의 세계」, 『창작과 비평』, 2008. 여름, 408쪽.

3. 공격성

“너는 박지예가 죽었다고 자퇴했잖아. 수업도 안 받고 시험지도 백지로 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는 생각해봤어. 나도 이런 거 싫어 미나야. 내가 꼭 너를 많이 좋아하는 거 같잖아. 하지만 아니야. 알잖아. 나는 아무도 안 좋아해. 다 싫어. 다 싫어. 나는 아무것도 필요없어. 나는 있지. 니가 완전히 혐오스러워. 니가 가진 모든 게 다 싫어. 다. 그래서 너를 죽여버리고 싶어졌어. 너한테서 너무 더러운 냄새가 나서 나는 너한테 가까이 다가가기 싫어. 너는 더러워. 그리고 나는 깨끗해. 나는 더러운 게 싫어. 그리고 너는 더러워. 너는 모든 더러운 걸 상징하고 있어. 그것들이 다 나한테 달라붙을 까봐 겁이 나. 싫어. 화가 나. 그리고 너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더러워지는 것 같아.”(284쪽)

수정의 생각에 인생의 패배자들은 감정에 휘둘리고 세상에 불만을 가지면서 자신의 슬픔을 과장하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수정은 이들에게 “죽일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102쪽)라거나, 사귀던 남자친구에게도 갑자기 “이제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마. 죽여버릴거야. 진짜로”(209쪽)라며 공격성을 드러낸다. 학원에서 라이팅(작문)을 가르쳤던 강사가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미국 가서 총 맞아 죽어버려라”(210쪽)라며 욕을 한다. 수정은 박지예에 대해서도 “자살 안했으면 내가 죽었을 거야”(282쪽)라고 말하거나, 박지예로 인해 침몰해가는 미나에 대해서도 제시된 인용문에서처럼 “너를 죽여버리고 싶어졌어”라고 말한다. 이제 수정과 미나는 결합관계나 경쟁관계가 아닌, 투쟁관계가 된 것이다. 이런 공격성의 이면에는 “그것들이 다 나한테 달라붙을까봐 겁이 나”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자신도 그런 감정에 전연될까봐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질투가 자조의 이면일 수 있듯이 공격성 또한 공포감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 수정은 미나로 인해 존엄성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기에 살해로까지 이어지는 공격성을 보인다.

이렇듯 어휘의미론적 측면에서 본 분노의 정념은 실망감, 불만족, 공격성 등의 어휘소들과 관련 있다. 이런 어휘소들은 모두 분노의 주체인 수정이 분노의 대상인 미나에 대해 느끼고 반응하는 정념으로 정리된다. 이는 소설의 제목이 ‘수정’이 아니라 ‘미나’인 것에서도 증명된다. 분노는 자신에 대한 긍정이자 상대에 대한 파괴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주체 내부가 아니라 외부 상황이 더 문제일 때 발생하는 정념이 분노라는 것이다. 또한 분노는 대상의 변화나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시 대상(객체) 의지적이거나 상호주체적인 정념이기도 하다. 이런 특성은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체 내부와 외부가 소통해야 한다거나, 주체와 객체(또 다른 주체)가 상호 주체적으로 소통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실망감이나 불만족, 공격성 등의 어휘소들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Ⅲ. 정념도식과 분노의 통사론적 전개 양상

분노의 어휘의미론적 접근으로 인해 분노의 정의나 성분, 유형 등에 대한 규명이 가능하다면, 그레마스와 폰타뉴가 『정념기호학』에서 제시한 정념도식 5단계를 통해서는 ‘과정’의 차원이나 서사진행상황과 연결된 정념의 행위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Ⅱ장의 어휘의미론적 접근이 정념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준다면, Ⅲ장의 통사론적 접근은 정념의 효과를 산출할 수 있게 해준다. 분노의 의미 자체가 아니라 그 의미생성행로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념도식이다.²⁴⁾ 서사기호학에서 중시하는 것이 서사도식이라면, 정념기호학에는 정념도식이 있다. 대부분의 서사에서 일반화될 수 있는 5단계의 정념도식을 통해 순행적인 서사내용을 분절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24) 홍정표(2014), 앞의 책, 94쪽 참조.

념도식 5단계를 관련된 요소 중심으로 표를 통해 정리한 후 각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²⁵⁾

단계	정념도식	서사도식	주체	대상과의 관계	정념의 예시
1단계	형성화	계약 (조종)	긴장주체 (실현된 주체)	연접	불안, 흥분, 동요
2단계	장치화	역량	인지·탐색주체 (잠재된 주체)	비연접	걱정, 두려움
3단계	정념화	수행	정념주체 (현실화된 주체)	이접	괴로움, 증오, 분노
4단계	정동화	결과	신체주체 (가능화된 주체)	비이접	놀라움, 걱정, 전율, 흥조, 창백함
5단계	도덕화	승인 (검증)	평가주체	연접 혹은 이접	긍정 혹은 부정

1. 형성화 : 수정은 자신이 미나에게 분노할까봐 불안해하다

지난밤 P학교 박지예가 독서실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중략) 죽기 직전, 그러니까 어젯밤 지예는 미나에게 죽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중략) 수정은 수시로 미나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미나의 눈치를 살핀다. (중략) 수정이 미나에게 힘내라고 문자를 보내자 미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끈 뒤 가방에 쑤셔넣는다. 수정은 당황한다. (29~31쪽)

정념도식 중 1단계인 ‘형상화(constitution)’에서는 선천적 기질이나 후천적 습관에 의해 주체에게 가해진 자극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면서 정념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충격을 받은 주체가 심적 평정을 잃어버리는 단

25) 정념도식 5단계와 관련된 이론이나 용어, 실제 분석은 ① A. J. 그레마스, J. 폰타뉴, 『정념의 기호학』, 유기환, 최용호, 신정아 역, 강, 2014, 357~379쪽, ② 홍정표(2014), 앞의 책, 157~186쪽, ③ 백승국, 「이문열의 <시인>의 정념기호학적 분석」, 『한국학연구』1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④ 백승국, 이혜지, 김강석, 「감성문화콘텐츠의 정념기호학적 고찰」, 『기호학연구』 제35권, 한국기호학회 2013

계에 해당한다. 『미나』에서 수정은 가장 친했던 친구 미나가 “친구의 자살 소식을 전해들은 여학생의 완벽한 상징”(33쪽)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며 긴장한다. 박지예의 자살이라는 행위가 미나의 일상에 변화를 주면서 자신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2. 장치화 : 수정은 미나에 대한 자신의 분노가 사라지기를 원한다.

수정이 그런 모멸적인 훈련에 열광한 것은 수정이 수용소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중략)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체제순응적인 인간이다. 도시는 점점 더 수용소의 담장을 높이 쌓아가고 있으며 수정은 그런 세계에서 빠져 나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그저 빨리 세계의 가장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서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여길 수 없을 만큼 높이 올라가서 모두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녀는 발밑에다 대고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고 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 수용소는 계속해서 수용소다워야 하며 학교는 계속해서 지옥의 입술처럼 붉고 두꺼워야 한다.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복종과 순응의 미덕을 가르쳐야 한다. (72쪽)

2단계인 ‘장치화(disposition)’는 불안함을 보였던 1단계 형성화의 주체가 인지 혹은 탐색의 주체가 되어 그 원인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단계로서, 여러 가지 양태적 장치들(의지(vouloir), 능력(pouvoir), 지식(savoir), 의무(devoir))이 주로 개입하게 된다. 『미나』에서 수정이 방황하는 미나를 보면서 그것을 무시하는 이유는 수정이 ‘수용소의 인간’이자 ‘체제순응적인 인간’이기에 수용소나 학교가 요구하는 “복종과 순응의 미덕”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 수정에게 미나는 분노감을 유발시키는 장애물이지만, 자신의 평정심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분노조차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수정은 “나는 네 관심이 필요해”(154쪽)라며 미나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노력한다.

3. 정념화 : 수정은 혼란스러워 하는 미나에게 분노를 느끼다.

너 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거지 같아져 가는 거야. 어떻게 늙은이들을 공경할 수가 있어? 너는 니가 고개를 숙이고 굽실거리는 사이에 그들이 너한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는 걸 모르고 있어. 다 빼앗기고 남은 건 하나도 없어. 상처만 남아서 씹어가는 거. 끔찍하지 않니? 그런 게 어른의 삶이야! 그리고 너는 그런 걸 좋아해! 그래서 이런 거지같은 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심지어 점점 확대되어가. 너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더러워져 가고 있다고. (298~299쪽)

정념화(pathémisation)는 시퀀스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앞 단계에서 경험한 정념들이 실제로 실현됨으로써 정념적 사건이 발생함과 동시에 정념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주체의 심적 변화가 가장 강렬하게 일어난다. 『미나』에서 수정과 미나의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어긋난다. 둘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수정이 보기에 미나의 잘못은 ‘어른의 세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10대의 순수한 삶을 위협하는 타락한 어른의 세계와 점점 닮아져가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정은 미나의 슬픔과 일탈에서 결국 허식과 위선만을 느낀다. 이런 분노는 미나 가족과 함께 으젠느 앓제의 사진전을 보고서 자신은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한 데 반해 미나 부모를 포함한 미나의 고상한 반응에서 “전후 20세기 유럽의 프티부르주아처럼 되길 원하는 극동아시아의 프티부르주아의 요란한 푸닥거리”(270쪽)를 발견했던 것과도 연결된다. 미나에 대한 분노는 어른들의 속물성과 위선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어들들 세계의 타락상이나 불합리성을 ‘알고서도’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편안하게 체제 내에 안착하려는 수정의 태도이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 괴물의 괴물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미나는 수정에게 가장 강력한 분노를 유발시키는 대상이다.

4. 정동화 : 수정이 미나에게 폭력(살인)을 가하다.

수정이 미나를 찌르기 시작한다. 힘껏 밀어 넣은 칼끝에서 전해지는 미나의 살과 뼈, 혈관과 근육을, 수정은 눈을 감고, 그것의 소리와 진동을 느낀다. 입이 벌어지고 가느다란 미소가 흘러나온다. 잘린 혈관에서 피가 솟구친다. 수정의 셔츠를 향해, 썰기 모양으로 창에 달라붙는다. 느낌표 모양으로 공작새의 날개를 지른다. 굵은 선을 그리며 바닥을 향해 기어내린다. 미나가 지르는 비명과 날카로운 금속 조각에 찢기는 살의 소음은 너무나도 멀리서 들려와서 수정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수정은 미나의 벌어진 입을 바라보며 반복하여 찌른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 (306~307쪽)

정동화(émotion) 단계는 모든 정념이 신체적 반응을 통해 발현되는 단계로서, 신체의 외부와 내부를 매개하는 신체기호학이 중심이 되는 단계이다. 분노에 대한 어휘들 중 II장의 ‘공격성’의 의미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정은 미나처럼 “불량품”(303쪽)이나 “쓰레기”(307쪽)가 되는 삶을 보여주는 인간들에 대해 자주 살의(殺意)를 느낀다. 그리고 미나에 대한 살의와 연관된 ‘공포’와 ‘혐오’라는 양가감정이 각각 수정에게 ‘눈물흘리다’와 ‘비웃다’라는 신체적 반응을 불러온다. 의외로 수정은 미나처럼 될 것 같은 공포로 인해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약자이고, 자신의 공격에 겁을 먹은 미나에 대한 우월감으로 인해 조소를 보내는 강자이기도 하다. 수정이 미나를 칼로 찌를 때 미나는 피를 흘리며 죽어간다. 인용문은 이런 복합적인 신체 반응이 최고조에 이른 부분으로서, 정념기호학에서 가장 특수하면서도 지배적인 특징인 신체적 반응을 가장 리얼하고도 충격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단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5. 도덕화 : 수정의 미나에 대한 살인은 비도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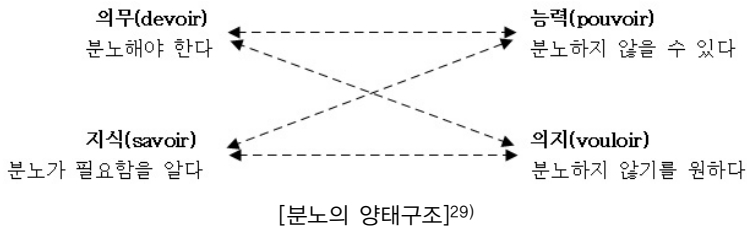
결국 삶은 수정을 질식시킬 것이다. 그녀는 개별적으로 질식될 것이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가장 더러운 것들이 그녀를 물들이게 될 것이다.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녀는 그런 식으로 키워졌다. 지배자들에 의해.

그렇게, 그녀는 살아남을 것이다. 도망치는 미친 쥐들의 등에 올라타, 그녀는 살아남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압사당한 채로, 그녀는 가장 높은 탑의 꼭대기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질식된 채로. (88쪽)

마지막 단계인 ‘도덕화(moralization)’는 정념적 행위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의 평가를 내리면서 의미생성행로의 종결 혹은 완료가 일어나는 단계이자, 부정적 정념에 대한 확산이나 전염을 막는 것이 목표가 되는 단계이다. 수정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은 미나이다. 그런데 인용문은 제3자 평가행위자(서술자)의 시각을 빌려 마치 수정이 삶에 질식당하고 지배자들에 의해 삶을 강탈당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살아남은 수정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승리가 압사나 질식사를 동반한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닌 패배에 다름 아니다. 수정의 살인 또한 광인이나 정신병자의 병적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 미나는 죽어가면서 수정에게 말한다. “착하게 살아. (중략) 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씨발스러운 데가 아니라고!”(287쪽) 정상적인 사회적 잣대로 평가하면 수정의 미나에 대한 살인은 도덕이 아니라 비도덕에 해당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이런 수정의 정념은 극단적인 폭력 행위이기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이상으로 정념 도식 5단계를 중심으로 소설의 종합적인 시퀀스를 정리해 보았다. 그런데 그레마스가 양태성에 관한 이론을 완성하기 위해 정념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고 밝혔을 정도로 정념은 양태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양태성은 정념 분석 내에서 중요한 분석 도구이다.²⁶⁾ 양태성은 불어에서 ‘이다(être)’와 ‘하다(faire)’처럼 “다른 서술어들을 파악하게 해 주는 서술어들의 부류”²⁷⁾를 지칭한다. 그리고 정념도식 5단계와 양태성 모두 “주인공의 서사 행로에 따른 정념의 발생과 확장,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정념 장치”²⁸⁾에 해당한다. 또한 분노의 정념 효과는 의지·능력·지식·의무 등의 4가지 양태 중 하나의 고립된 양태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교차나 조합 등에서 산출된다. 일단 분노의 양태구조를 4개의 양태범주 중심으로 기호 사각형 구조를 통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미나』에 나타난 분노는 ‘의지’와 ‘의무’ 등의 두 가지 양태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노하지 않기를 원하다(의지)’에서 ‘분노해야 한다(의무)’라는 양태로의 변화로 5단계의 최종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보다 의지가 더 강하면 비도덕적 구조를 보여주고, 의지보다 의무가 더 강하면 도덕적 구조를 형성한다.³⁰⁾ 『미나』에서는 ‘분노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부적절한 살인으로 종결되어 비도덕적인 구조로 최종 결말을 맞는다. 그런데 만약 ‘분노하지 않기를 원하다’라는 의지가

26) 홍정표(2014), 앞의 책, 148쪽 참조.

27) 김성도(2002), 앞의 책, 391쪽.

28) 백승국·이혜지·김강석(2013), 앞의 논문, 126쪽.

29) 백선기(2010), 앞의 논문, 144쪽 참조.

30) 홍정표(2014), 256쪽 참조.

더 강하게 실현되어 수정과 미나가 화해에 이르는 결말로 소설이 끝났다면, 이 소설의 ‘도덕화’ 단계를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아있다. 수정은 비난받기만 해야 마땅한 존재인가라는 ‘불편한 질문’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소설의 특징이다. 그래서 소설의 끝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런 느낌이 다음에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선조건 충족’을 새롭게 설정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IV. 선조건 충족에서의 긴장도식과 분노의 폭발

정념기호학에서 문제 삼는 정념은 “주체에 의해서 획득되고, 상실되고, 지연된 가치들의 기호학”³¹⁾이다. 이처럼 ‘가치의 기호학’으로서의 정념기호학을 중시할 때 정념도식의 5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도덕화’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럴 때 비로소 정념기호학이 단순한 서사나 담화구조를 넘어 미학이나 정치학, 문화 등과도 접목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II장과 III장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해보았던 내용들은 여전히 담화적이기에 존재론적이나 역사적인 층위에서 분노의 ‘가치’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상황이나 제도와 정념이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정념의 논의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서 제기된다. “정념 자체의 생성과정이 아닌 정념 생성이 사회와 맺게 되는 연계성에 주목하는 시도들이 별로 없었다.”³²⁾는 반성과도 연관되는 지점이다.

더욱이 『미나』처럼 도덕화의 단계에서 혼란과 모순을 보여주는 경우는 시대 상황과 연결되는 가치 판단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다. 도덕과 비도덕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소설의 결말에서 과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정의 미나 살해’라는 극단적이고도 폭력적인 정념적 사건을 제

31) 김성도(2002), 앞의 책, 3390쪽.

32) 백선기(2010), 앞의 논문, 141쪽

대로 평가해야 할 난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저 21세기 자본주의의 폐해나 병리적 징후로 간주하여 도적적인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단순 평가로는 이 소설이 지닌 불온성과 파급력을 무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분노라는 정념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나 살인이라는 행위를 초래한 맥락, ‘분노 자본’으로까지 명명될 수 있을 정도로 정념이 어떻게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재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 수정의 분노는 해답이 아닌 질문으로 남아있는가. 왜 수정의 분노는 무차별적 증오에서 정당한 반향으로 재평가될 여지를 제공하는가. 왜 수정의 폭력적 행위는 “극단적인 수동성의 상황에 내몰린 존재들의 가학적 자기방어”³³⁾로도 볼 수 있는가.

- 1) 하지만 사실 정말 멍청한 것은 수정이다. 그리고 그것은 수정이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학원에 다니기 때문이다. P시의 사교육 시장은 붕괴된 P시의 공립학교 시스템을 비웃으며 학생들을 계급에 따라 분리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다. 그러나 그것은 대안이 아니라 붕괴된 P시의 공립학교 시스템에 기생하는 거대한 시장일 뿐이었다. (23~24쪽)
- 2) 너는 정말로 악마였어. (중략) 너에게서 악의 빛이 보인다. (중략) 세상은 선한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너의 눈으로 보기엔 그렇겠지. 악마에게 악은 선이고 또 선은 악이잖아. 그래 너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왜냐하면 참말로 악이니까. 완전한 악. 그래서 너는 죽어야 해. 내 손으로 너를 없애고야 말겠다. 처음에 나는 너랑 내가 비슷한 종류의 인간인 줄 알았어. 내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던 거지. 너랑 나는 완전히 달라. 너는 악이니까. 나는 선이니까. 너는 악마니까. 나는 천사고. (288~298쪽)

수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댈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이다. 미나에 대한 분노와 살인도 스스로의 논리와 가치 판단에 의한 자발적인 행위이다. 수정이 보기에 ‘미나의 덕목’으로 간주되는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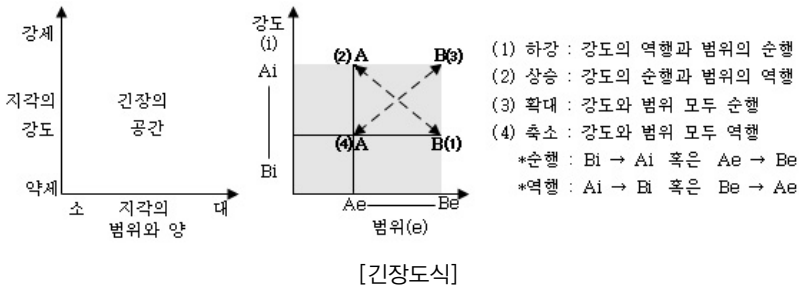
33) 심진경, 「무서운 소설, 무서운 아이들」, 『자음과 모음』, 2012.봄, 81쪽.

든 것들은 오히려 “완전한 악”에 해당한다. 인용문 1)에서처럼 학원으로 대변되는 사교육 시장의 경제논리에 의해 계급은 더욱 분리되고 고착화된다. 번역가 겸 소설가로서 가난한 지식인이었던 미나의 아버지도 3년 전 로또에 당첨된 후 부동산과 펀드에 투자해 겨우 중산층의 삶에 편입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빛에 허덕이고 있고, 유행만을 맹목적으로 추수하는 속물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수정이 보기에 이런 삶을 영위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혜택”(85쪽)이기에 그런 “고통스러운 교환”(85쪽)을 감당해야 한다. 쓸 데 없는 자의식이나 지적 허영은 오히려 ‘악’이다. 수정이 분서갱유를 옹호하면서 “책이라면 문제집만 빼고 다 필요없어. 다 불태워 버려야 해”(271쪽)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혜택’과 ‘교환’을 거부하려는 미나는, 때문에 수정이 보기에는 오히려 ‘악마’이다. 인용문 2)에서 “악마에게 악은 선이고 또 선은 악”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수정의 가치관에서 선과 악은 전도된다. 악을 처벌하려는 악은 ‘도덕을 넘어선 도덕’, ‘선을 환기시켜주는 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나에 대한 수정의 폭력은 정당화되고 신념화된다. 그래서 수정은 당당하게 말한다. “나 같은 사람을 원하는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정상적인 거지 비정상인 것이 아냐.”(30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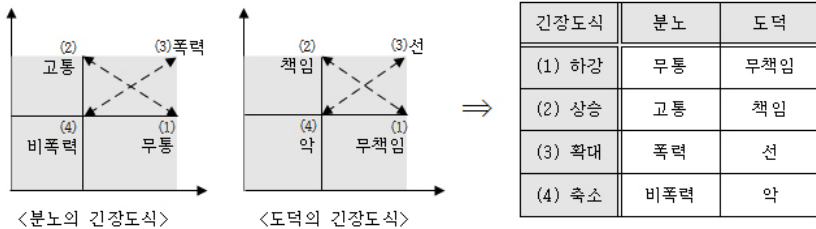
이런 선과 악이 전도된 도덕관념에서 소설 속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다. 그리고 이때의 긴장은 선과 악의 급격한 자리바꿈과 혼란스러운 결합에 연유한다. 1999년에 풍타뉴가 단독으로 쓴 『담화 기호학 Sémiotique du Discours』에서는 새로운 정념도식이 제시되는데 그것이 바로 ‘긴장도식’이다.³⁴⁾ 긴장도식은 정념효과를 기호생성행로 중심으로 파악하지 않고 담화에서 직접 파악하면서 정념기호학에서만 독특하게 설정할 수 있는 ‘선조건 충족’을 중심으로 설정된다. 선조건 충족은 “인

34) 새로운 정념 분석의 틀로서 제시되는 선조건 충족이나 긴장도식과 관련된 이론이나 분석은 ① 자크 풍타뉴, 「열정과 감동」, 『기호학과 문학』, 김치수·장인봉 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96~133쪽, ② 홍정표(2014), 앞의 책, 247~293쪽 참조.

간의 사고나 행위가 있기 전에 감각과 지각이 이루어지는 층위”³⁵⁾이기에 의미생성행로의 분석층위인 ‘심층-표층-담화’의 3층위에서 심층 층위보다 더 심층에 있는 최저심층 층위이다. 이처럼 새롭게 설정된 선조건 층위는 가상체 안에서의 긴장과 감(感), 조작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분노의 정념과 연관지을 때 중요한 긴장현시요소는 다음처럼 ‘강도’와 ‘범위’로 분절되면서 긴장도식을 형성한다.



이런 긴장도식을 『미나』에 적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긴장도식은 폭력(살인)이 오히려 선으로 평가되는 데서 연유하는 모순과 전도 현상을 긴장의 ‘상승’과 ‘확대’ 추구 양상을 통해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35) 홍정표(2014), 앞의 책, 100쪽.

일단 ‘무통(無痛)’은 고뇌와 아픔, 불안,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고통’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와 연관되어 자기 존재와 문명의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진짜 고통을 회피하는 것을 ‘무통문명’이라고 한다.³⁶⁾ 정보화와 자본주의를 포위하고 있는 무통문명 중심의 사회에서는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지극히 저하(긴장의 하강)되고 있기에, ‘무책임’에 가까운 무통보다는 오히려 고통이라는 정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긴장의 상승)이 더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미나』에서 수정이 어른들의 속물성과 타락을 비판하면서 아이들의 순수함과 무모함을 옹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이들은 무통신체를 계속 자극하여 다시 아픔의 감각이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 이것저것 계속 찌르고 피를 흘리고, 그 피의 아픔에서 ‘어른’들이 각성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³⁷⁾ 때문에 무통신체를 칼로 찌르는 수정의 ‘폭력’이 오히려 ‘선’이 되고(긴장의 확대), 무통신체에 만족하며 안주하려는 미나의 ‘비폭력’이 오히려 ‘악’이 되는 것이다(긴장의 축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사기호학에서는 ‘잠재화→현실화→실현화’의 세 층위가 중심이었다면, 이런 긴장도식 중심의 선조건 층위의 설정으로 인해 ‘가능화(potentialism)’라는 기호학적 존재층위가 새롭게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념기호학』에서는 ‘잠재화→현실화→가능화→실현화’로 설정함으로써 행위 실현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정념으로 그 의미가 한정되었지만, 『정념기호학』이후로는 ‘가능화→잠재화→현실화→(→가능화)→실현화(→가능화)’로 파악됨으로써 정념의 존재층위가 다변화된다.³⁸⁾ 이런 가능화의 위치(변화)로 인해 확보될 수 있는 의의는 첫째 텍스트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정념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해졌다는 것, 둘째 정념이 행위의 전제조건이 아니

36) 모리오카 마사히로, 『무통문명』, 이창익, 조성윤 역, 모멘토, 2005, 27쪽 참조.

37) 같은 책, 106쪽.

38) 최용호(2014), 『정념의 기호학』(해제), 32~34쪽 참조.

고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조건으로 인정된다는 것, 셋째 행위의 처음이나 끝, 시발점이자 종착점으로서 ‘왜’라는 행위의 이유와 가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실현화 ‘이전’이기도 하고 그 ‘이후’이기도 한 가능화의 존재충위로 인해 정념은 행위나 가치의 구성요소이자 영향조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의를 통해 정념기호학의 진정한 연구목적이나 실용성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나』에서 중요한 것은 수정이 미나를 살해했다는 사건 자체가 아니다. 도대체 ‘왜’ 그런 살해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해의 선조건(이유)’ 혹은 ‘실현화의 계기’로서의 정념 문제에 대해 분석하거나, 정념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고 유의미하다. 수정의 미나에 대한 살인이 분노의 ‘끝’이 아닌 또 다른 분노의 ‘시작’일 수 있다면 더욱 그렇다. “담론들의 정념은 결코 세계의 장식이 아니라 제반지식과 정념과 행동들이 서로 상충되며 대결하는 일체의 독사(doxa)들로 얽히고설킨 연단”³⁹⁾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긴장도식과 가능화 충위를 고려할 때 분노의 ‘폭발’이라는 측면도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긴장의 형태로 가능화 충위에 머물러 있던 분노가 폭력적이고도 도덕적인 에너지, 즉 반항과 저항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면에 폭발의 기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분노는 ‘마음의 격발’이나 ‘펄펄 끓는 그릇 속의 액체나 가스’로 비유되면서 모두 강력한 폭발성과 연관된다.⁴⁰⁾ 이때의 힘(力)이나 열(熱)과 연관되는 에너지를 통해 불복종이나 전복, 변혁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폭발적 에너지로서의 분노가 기호학자인 로트만(Yuri M. Lotman)에게는 창조적 행위에 필요한 ‘영감(靈感)’의 개념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기호학적 지층에 뚫린 창문”⁴¹⁾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39) 김성도(2002). 앞의 책, 421쪽.

40) 김경호, 「분노한다. 고로 살아간다」, 최유준 외, 『우리시대의 분노』, 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267쪽.

41) 유리 로트만, 『문화와 폭발』, 김수환 역, 아카넷, 2014, 47쪽.

분노와 공통점이 크다.

특히 『미나』에서는 분노의 폭발을 통해 무통/고통, 비폭력/폭력, 무책임/책임, 악/선이라는 대립되거나 모순된 것들이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 최대치의 긴장을 조성하면서 서로의 위치가 전도된다. 즉 분노의 폭발로 인해 정반대 축이기에 결합할 수 없었던 것들이 결합되고, 번역 불가능했던 것들이 번역되는 예측불가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⁴²⁾ 때문에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고, 어느 것이든 가능해질 수 있는 연속적인 미분화 상태로 반대항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가능화 단계에서 보여지는 분노의 폭발은 “서로에게 낯선 언어들, 즉 수용하는 문화의 언어와 수용되는 문화의 언어가 서로 충돌하는 순간”⁴³⁾과 연결된다.

무엇보다도 파국·중단·정지 등 일련의 급작스러운 전이를 자극하는 계기들 속에서 폭발의 국면은 “모순적 가능성들의 분산이 아니라 반대로 최대한의 집중”⁴⁴⁾을 보여줌으로써 동등한 가능성 속에서 대립되는 것들의 동일시나 선택의 윤리를 촉구한다. 이런 맥락에서라면 수정의 미나에 대한 분노의 폭발은 친구에 대한 살인이라는 사건 자체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사건을 가능케 해주는 ‘어떤 조건의 급작스러운 개시’나 ‘열린 가능성의 공간’으로 이해해야 한다.⁴⁵⁾ 이것이 바로 폰테뉴가 정념기호에서 선조건 충족이나 가능화 단계와 연관되는 긴장도식을 나중에 추가한 이유이기도 하다.⁴⁶⁾ 우리 모두가 분노의 주체이자

42) 같은 책, 40~47쪽, 209쪽 참조.

43) 같은 책, 228쪽.

44) 김수환, 『사유하는 구조:유리 로트만의 기호학 연구』, 문학과 지성사, 2011, 415쪽.

45) 같은 책, 415~422쪽 참조.

46) 이런 측면에서 분노와 같은 다양한 정념의 기호들을 기호가 아닌 ‘기호계(semiosphere)’의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도 유효할 수 있다. 로트만에 의하면 기호계는 고립된 정적 세계가 아닌 다양성과 역동성을 지닌 기호의 연속체로서, “상이한 언어와 다양한 기호 체계의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그것들의 존재와 기능을 위해 ‘선재하는’ 기호학적 조건이다. 즉 모든 구체적 기호 작용에 앞서 존재하는 단일하고 총체적인 메커니즘”(유리 로트만, 『기호계』, 김수환 역, 문학과 지성사, 2008, 337쪽)이라면 선조건 충족이나 가능화, 긴장의 폭발 개념 등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관성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은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대상이고, 자본주의의 괴물이자 희생양,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정은 미나일 수 있고, 미나 또한 수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계가 끊임없이 수많은 수정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⁴⁷⁾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럴 때 김사과 소설의 불편함과 불온성의 기저가 드러나면서 김사과를 “지옥불에 타 죽고 싶지 않아서 지옥을 그리는 작가”⁴⁸⁾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V. 결론 : 정념기호학과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

김사과는 다음처럼 말한다. “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무척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가 별로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체제는 계속해서 인간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난 계속해서 이 체제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보려고 한다.”⁴⁹⁾ 이 작가의 첫 장편소설인 『미나』는 자본주의의 고통과 이에 대한 반항의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소설이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분노의 정념을 통해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한 ‘격렬한 반응’을 폭력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반항 여부나 폭력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노 이전과 분노 이후를 납득시키기 위한 분노의 이유나 목적의 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사기호학이 아닌 정념기호학적 접근이 유효했던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이런 김사과의 소설에 대해 “세계의 병적 징후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이긴 해도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너무 단순한 비판”⁵⁰⁾을 한다거나, “세

47) 정여울(2008), 앞의 글, 409쪽.

48) 남궁선, 「끝없이 쏟아내는 아이」, 『문학동네』, 2009. 겨울, 135쪽.

49) 김사과, 「소설가 김사과의 창작노트」, 『오늘의 문예비평』, 2009. 여름, 194쪽.

50) 정홍수(2014), 앞의 글, 50쪽.

계에 대한 방향 없는 분노의 표출과 무기력한 응시의 악순환⁵¹⁾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패한 세계를 파괴함으로써 재건하고자 하는 급진적 혁명에의 의지”⁵²⁾ 혹은 “사회의 초고압 송전망에 포위된 채 출구를 찾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주어진 파괴적이고도 절박한 자기생존기술”⁵³⁾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또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양가적이고 모순적인 평가를 정념이라는 기호의 생성 과정 및 연속성을 통해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정념기호학이다. 특히 분노라는 정념 자체가 긍정과 부정의 가치를 동시에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는 더욱 정념기호학의 대상으로서 복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의미와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김사과 소설 『미나』를 통해 분노 관련 중심 어휘 소인 ‘실망감 → 불만족 → 공격성’을 중심으로 ‘공격성이 동반된 불만족’이라는 분노의 사전적 정의를 문학 텍스트 속에서 구체적으로 검증하였으며(Ⅱ장), 분노의 생성경로를 통사론적 입장에서 정념 5단계인 ‘형성화 → 장치화 → 정념화 → 정동화 → 도덕화’의 전개과정 속에서 분석하였고(Ⅲ장), 무통/고통, 비폭력/폭력, 무책임/책임, 악/선이 어떻게 전도되는지를 선조전 층위에서의 긴장도식을 통해 도출해보았다(Ⅳ장). 이런 접근 층위는 정념 연구에서 서사통사론(서사도식)에서 양태통사론(정념도식)으로, 그리고 긴장통사론(긴장도식)으로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간 궤적과 그 방향이나 순서가 일치한다.⁵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념기호학의 구조적이고 담화론적인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 보다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반응으로서의 정념의 가치에 대한 논의 보완을 위해 로트만의 ‘문화 폭발’ 개념을 시범적으로 접목시켜 보았다. 인간의 정념뿐만 아니라 사

51) 복도훈, 「세계의 끝, 끝의 서사」, 『자음과 모음』, 2011. 가을, 413쪽.

52) 강유정, 「이어폰을 낀 혁명가」, 『미나』(해설), 320쪽.

53) 김예림, 「조로 혹은 변사(變死)하는 아이들을 위한 비망록」, 『오늘의 문예비평』, 2009. 여름, 207쪽.

54) 홍정표(2014), 앞의 책, 51쪽 참조.

회적 정념으로서의 분노에 대한 의미나 가치 부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21세기 탈감정사회나 소비자본주의에 대한 무관심이나 냉소와 같은 ‘정념의 부재(apathy)’가 만연해있는 2010년대 전후의 한국문학에서 김사와 소설로 대표되는 분노의 정념은 계몽주의적인 봉합이나 휴머니즘적인 애도를 통해 어설프게 도덕이나 윤리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저항을 보여준다. 논리와 구조를 중시하는 기존의 기호학에서 정념이라는 연구대상이 그랬던 것처럼, 불편하고 낯설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정념기호학의 대상으로서의 분노라는 정념이자 분노의 문학이다. 더 이상 자본의 억압과 비인간성에 대해 순응하지 않겠다는 가장 도덕적 반응이 바로 분노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김사와 소설은 분노가 자본이 되는 21세기적인 디스토피아소설이자 유토피아소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사과, 「뒷문」, 『문장웹진』, 2007. 5.
- , 「내 취미는 반항이다」, 『문장웹진』, 2008. 10.
- 김수환, 『사유하는 구조:유리 로트만의 기호학 연구』, 문학과 지성사, 2011.
-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 김영찬, 「양팡 스키조」, 『02영이』(해설), 창비, 2010.
- 김형중, 「돌아온 신경향파」, 『자음과 모음』, 2010. 봄, 652~667쪽.
- 남궁선, 「끝없이 쏟아내는 아이」, 『문학동네』, 2009. 겨울, 128~137쪽.
- 류보선, 「한국소설의 새로운 발명품들」, 『문학동네』, 2011. 봄, 503~525쪽.
- 박인철, 「테오돌 리보의 정념 이론」, 『기호학연구』 제28권, 한국기호학회, 2010, 77~106쪽.
- 백선기, 「영화에서 표출된 정념의 기호와 그 함축적 의미」, 『기호학연구』 제28권, 한국기호학회, 2010, 135~172쪽.
- 백승국, 「이문열의 <시인>의 정념기호학적 분석」, 『한국학연구』 1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71~98쪽.
- 백승국 · 이혜지 · 김강석, 「감성문화콘텐츠의 정념기호학적 고찰」, 『기호학연구』 제35권, 한국기호학회, 2013. 121~146쪽.
- 소영현 · 이하나 · 최기숙, 『감정의 인문학』, 봄아필, 2013.
- 심진경, 「무서운 소설, 무서운 아이들」, 『자음과 모음』, 2012. 봄, 174~192쪽.
- 이경재, 「21세기를 담아내는 세가지 방식-김사과의 정념 3부작을 중심으로」, 『비등하는 역사, 결빙의 현실』, 푸른사상, 2013, 217~232쪽.
- 이수형, 「문학과 감정 논의에 대한 (재)검토」, 『문학과 사회』, 2015. 여름, 484~495쪽.
- 정여울, 「구원 없는 희생제의, 그 끔찍한 악몽의 세계」, 『창작과 비평』, 2008. 여름, 407~410쪽.
- , 「구원없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문학과 사회』, 2010. 여름, 333~346쪽.
- 정홍수, 「현실의 귀환, 그리고」, 『흔들리는 사이 언뜻 보이는 푸른별』, 문학동네, 2014, 43~54쪽.
- 한병철, 『심리 정치』, 문학과 지성사, 2015.
- 최유준 외, 『우리시대의 분노』, 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 홍정표, 『정념 기호학』,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4.

- 모리오카 마사히로, 『무통문명』, 이창익, 조성윤 역, 모멘토, 2005.
- 스테판 G. 메스트로비치, 『탈감정사회』, 박형신 역, 한울, 2014.
- 스테판 에셀, 『분노하라』, 임희근 역, 돌베개, 2011.
- A. J. 그레마스, 『의미에 관하여』, 김성도 편역, 인간사랑, 1997.
- _____, J. 폰타뉴, 『정념의 기호학』, 유기환, 최용호, 신정아 역, 강, 2014.
- 유리 로트만, 『기호계』, 김수환 역, 문학과 지성사, 2008.
- _____, 『문화와 폭발』, 김수환 역, 아카넷, 2014.
- 자크 폰타니유, 『기호학과 문학』, 김치수·장인봉 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Literature of Anger and Semiotics of the Passion -Focused on Kim Sagwa's 『Mina』

Kim, Mi-Hyun

Semiotics of the passion is valid in contemplating literary reaction to 21st century capitalism, focusing not on the act, but on passion. The new ‘literature of anger’ trend, questions the reality of the ‘New Poor’ through consumption and emotion rather than production and reason. 『Mina』, the novel of young author Kim Sagwa, is considered one of the major works of the ‘literature of anger’. Sujung, the main character, brutally murders her friend Mina who is terrified and suspicious of the college entrance system that focuses on competition, the cult of success, and capitalism based on consumerism. Through Sujung’s anger, passion can come into the fore as a research subject of semiotics. In this novel, anger by its definition, creates meaning by being linked with words such as ‘disappointment’, ‘discontentment’, and ‘aggression’. The narration develops by going through the five syntactic stages of ‘constitution-disposition-pathémisation-émotion-moralization’. In addition, the degree and scope of tension is expanded through the ‘explosion’ of anger. Through this semiotics of the passion that focuses on anger, we can identify a new area of semiotics that not only is linked with text layers but also socio-historical situations.

Key Words: Semiotics of the passion, anger, Kim Sagwa, capitalism, apathy

투고일 : 2015. 08. 15. / 심사일 : 2015. 08. 30. / 심사완료일 : 2015. 09. 05.